

'3퇴'와 평안

제 273기 2016년 10월 24일

2016년 10월 19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5,355만 명

안전국 국장이 가명 '3퇴'에 흔쾌히 동의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중공(중공은 중국과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해외 퇴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안전국 국장이 가명 '3퇴'에 흔쾌히 동의하다

[대륙 투고] 9월 22일 저녁, 나는 '3퇴'하여 평안을 보존한다는 진상을 알리던 중에도 향의 영도였다가 성으로 진출해 국장이 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어느 국 소속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물었다. "동생! 지금 어느 국에 있는가?" 그가 말했다. "안전국이요!" 내가 말했다. "지금은 안전국도 안전하지 않아. 형이 알려줄게. 자네가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쪐싼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자네가 가입했던 그 중공의 당, 단, 대원 신분을 탈퇴한다고 마음 속으로 성명해야만 정말 평안을 얻고 안전해져. 왜냐하면 머리 석자 위에 신령이 있는데, 현재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고, 중공은 산 사

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아 돈을 벌어. 또 역대 운동으로 8천만 중국 동포를 죽였고, 고관은 부패하기까지 했어. 그래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거야. 자네는 중공에 가입할 때 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서 그를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고 생명을 그에게 바친다고 했어.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자네는 그의 일원이니 그의 순장품이 될거야. 만약 자네가 마음 속으로 탈퇴를 한다면 신불은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곧 자네를 보호할 텐데, 자네가 생명을 보전하고 안전해지지 않겠나?" 결국 그는 가명으로 '3퇴'하는데 흔쾌히 동의했다.

"당신은 그를 구해주면서 나는 구해주지 않는가?"

[대륙 투고] 나는 의사다. 한번은 도사 한명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20여년 동안 수도했다고 말했다. 나는 농담삼아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20여 년이나 수도를 했는데, 어떻게 병원에 입원을 했나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수련을 잘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온 몸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는 대단히 신기해하면서 자세히 말해 달라고 했다. 나는 또 그에게 '3퇴'하여 평안을 보존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당원인가요?" 그는 빨간 스카프를 맴다고 말했다.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신을 믿는데, 공산당은 무신론이니 이건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그는 문득 크게 깨닫고 말했다. "당신의 한 마디를 들으니 여러 해 동안 헛되이 수련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는 소선 대 탈퇴에 동의했다. 그때 옆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노부인이 황급히 말했다. "당신은 왜 그만 구해주고 나는 구해주지 않나요! 나도 20여년 동안 기독교를 믿으면서 입당까지 했으니 나도 자신의 신을 속인 것이 아닌가요?! 당신은 빨리 나를 탈퇴시켜 주세요! 우리 영감도 탈퇴시켜 주세요!"

내가 말했다. "이모, 이건 반드시 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부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영감은 뇌혈전이라 말을 못해요.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원할 거예요. 그도 탈퇴시켜 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와 남편의 '3퇴'에 쓸 가명을 지어 주었다. 노부인은 기뻐하며 자리를 떠났다.

누구든 공산당 속에 들어가면 곧 바보다

[대륙 투고] 생질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많은 동기들처럼 연구생 시험 준비를 했다. 모양을 갖추기 위해 그녀의 동기 중 어떤 사람은 중공 사당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당원이라는 꼬리표에 가산점이 붙기 때문이었다.

학생회 회원인 생질녀는 늘 학교 측으로부터 입당 요구를 받았다. 일찍이 중공의 진면목을 알아차린 생질녀는 은사의 요구를 여러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 생질녀가 말했다. "현재 입당하는 사람은 모두 틀림없이 파룬궁을 반대하고 진(眞), 선(善), 인(忍)을 반대해요. 진심이든 아니든 그런 태도를 표시한다면 곧 나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는 이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누구든 공산당 속으로 들어간다면 곧 바보가 아니겠어요?"

한국 국회,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집중 토론회 개최



[명혜망] "저는 '생체적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체 장기적출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고, 동물에게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사람에게 하다니요? 이런 행위는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거대한 범죄입니다." 한국 국회 출입기자포럼 김윤호 회장이 국회의사당에서 '생체적출'을 관람한 후 분개하며 말했다.

2016년 10월 13일,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미국 독립 조사기자 에단 구트만이 초청을 받아 한국 국회를 찾았다. 그들은 한국 국회의원, 의학, 법률계 대학생, 텔레비전과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

화 '생체적출'을 함께 관람했다. 영화를 관람한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범죄행위가 이미 10여년 동안 계속됐으며, 현재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를 상대로 벌이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제지할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것이 이번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중국 내에서 불법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 한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국 정부에 호소하고,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제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한국 국회에 독촉했다.

신화사가 생체 장기적출을 부인하는 황당한 논리

[명혜망]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죄악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중공의 대변자인 신화사가 2016년 10월 16일, 이른바 ‘국외 학자’의 말이라는 미명 하에 생체 장기적출의 죄악을 발뺌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중공이 논리를 뒤섞은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그의 죄악이 광범위하게 알려졌으며, 숨을 곳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킴고어, 그리고 조사기자 애단 구트만은 2016년 6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700항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그들이 앞서 발표한 보고서(‘피비린내 나는 생체 장기적출’과 ‘학살’)의 개정판이다.

새로운 보고서에는 2,400여 개의 각주가 달렸는데, 절대다수의 각주는 중국 대륙의 인터넷 사이트(또는 백업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700항의 보고서 내용은 곧 중공 정부 측의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써여졌다. 한번 묻고 싶다. 중공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른바 외국 학자와 신화사 기자들은 700항의 이 보고서를 읽어봤는가? 2,400개의 각주를 직접 확인해 봤는가?

중공의 초청을 받은 외국 학자가 만약 지금까지 ‘생체 장기적출’을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상술한 보고서를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체 장기적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단지 개인 이익이나 사상적인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 친중공의 입장에서 중공을 위해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화사는 보도 중에 한국 배재대학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안신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 대학 교정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을 향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에 관해 말하자 안신은 유학생들이 이런 지적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국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증거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안신의 말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는 막론하고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과 관련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생체 장기적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외 조사원이 발표한 생체 장기적출 조사보고서를 감히 주제목 ‘반박’하지도 못했다.

평황 위성TV 산하의 ‘평황주간’은 2013년 11월, ‘중국 인체 장기 매매의 흑막’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10년 간 장기이식 여행이 중국에서 번창했고 장기는 거의 말만 하면 온다고 밝혔다. ‘신장을 거의 돼지 콩팥처럼 쉽게 살 수 있고’ 기다릴 필요 없이 쾌속으로 맞는 사람을 찾는 기적이 펼쳐지자 국제 의학전문가가 말했다. “중국에는 틀림없이 거대한 지하 인체 장기 창고, 심지어 살아있는 장기 창고가 존재한다.”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을 잡아떼는 것은 ‘신장을 거의 돼지 콩팥처럼 쉽게 살 수 있는’ 현상에 대해 해석한 것이 아닌가? 장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톈진의 둥팡장기이식센터가 2006년 준공한 새 빌딩에는 500개의 병상이 있고, 동시에 17건의 간, 신장 이식수술(간 이식 9건, 신장 이식 8건)을 진행할 수 있다.

2008년에 또다시 증축을 했다. ‘중국 건축개조망’에 있는 톈진건축설계원의 한 문서에 의하면 이 이식센터의 간, 신장 이식

병상 가동율이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와 가동율, 그리고 입원 주기(3주에서 1개월)를 계산하면 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식수술이 매년 5천~8천 건에 이른다. 그러나 중공은 전국을 통틀어 매년 1만 건이라고 주장한다.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을 부인하는 것은 이 센터의 이식수량에 대해 변명하려는 것이 아닐까?

중공은 감히 진실한 증거를 반박하지 못한 채 일부 이른바 외국 학자를 끌어들여 TV에 출연시켰고, 국제사회가 중공의 이식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받아들였다’는 것은 중공의 혼잣말이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8월 홍콩에서 열린 제26차 국제장기이식협회(TTS)에서 장기이식학회 회장 필립 오코넬은 ‘국제사회가 중국 이식 체계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들(한구 시보의 기사 한 편을 지적하며)은 아마 그렇게 말하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이 폭로된 후 중공은 줄곧 이 화제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매년 대량의 대륙 여행객이 해외 여행에 나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생체 적출’과 관련한 진상을 보거나 접촉해 중공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파룬궁을 박해한 저우용강,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쿠보슝, 쑤룽, 맹지화 등 장쩌민 건달집단이 반부패 운동 중에 차례로 낙마했고, 남아있는 장쩌민, 쟁칭훙, 류원산, 장더장 등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 장쩌민 건달집단이 통제하는 중공의 대변자들은 일제히 ‘생체 장기적출’을 제멋대로 부인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른바 학자라는 안신은 중공 정부가 ‘생체 적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를 희망했다. 신화사는 ‘증거를 요구’한 이 외국인의 말을 ‘외국 학자가 생체적출이라는 요언을 반박’한 것으로 날조해 중국인들 앞에서 ‘생체 장기적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았고, 증거를 요구하는 말을 증거로 이용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을 발뺌하는 황당한 논리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증거를 요구하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증거를 요구한 것이 곧 증거라고 한 것이다.

발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공의 발뺌은 단지 각계로 하여금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그의 죄악을 알게 해 사당의 해체를 가속화 뿐이다.

사위가 승진해 연봉이 약 10만 위안 증가하다

[산동 투고] 2013년 10월 어느 날 오전, 나는 한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시장에서 파룬궁이 박해 받는 진상을 알리다 파룬궁의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파출소로 납치됐다.

파출소 안에서 우리는 접촉할 수 있는 경찰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당당하게 파출소에서 걸어나왔다.

떠나기 전 파출소에서는 가족을 불러 우리를 데려가도록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스스로 가겠다고 해도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곧 밖으로 출장을 나간 사위의 전

화번호를 그들에게 주었다. 사위는 파룬궁의 진상을 잘 알고 이미 대기원 퇴당 사이트에서 ‘3퇴’ 성명을 했다.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더니 기지를 발휘해 우리가 함께 산다고 대답했지만, 외지에 있어 올 수가 없었다.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위는 이렇게 우리 집을 보호해 경찰의 불법 재산 압수를 당하지 않게 했고, 경찰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범죄를 더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했다.

2013년 말, 사위는 복을 받아 부서의 부경리로 승진했고 연 수입이 약 10만 위안 증가했다.